

사회노동위, 1월 26일 '실천위원회 20인' 위촉

올해 확대·개편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20명의 실천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나선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1월 26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노동실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노동실천위원단은 '노동위원회'가 '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노동·인권·빈곤 등 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불교계 사회활동을 펼치고자 구성됐다.

실천위원으로는 사회노동위원회 종령 9조 2항에 따라 사회노동위원장 혜용 스님, 봉은사 사회국장 혜찬 스님, 조계사 사회국장 승묵 스님 등 20인이 위촉됐다. 실천위원단은 위촉식 직후 3층 회의실에서 노동·인권·빈곤 문제 관련 기본 소양 교육시간을 가졌다.

올 한해 사회노동위는 새롭게 구성된 실천위원단과 함께 장애·여성·청소년·성소수자·인권 등 사회갈등문제 해결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불교계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인권단체 및 3대종교 노동현의 등과 함께 정기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세월호가족대책위 등 특정사안에 따른 연대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세계명상대전 2월 25일~28일 정선서

세계적 참선명상 멘토 한자리에



아잔 간하

심도 선사

해국 스님

아잔 브람

직계 제자인 그는 한때 밀림 속에서 제자들과 결식하며 유행하던 중 목숨을 위협하는 9m 길이의 거대한 맹독성 코브라의 공격을 받았으나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의 손길로 코브라를 쓰다듬어 주어 조용히 사라지게 한 일화로 유명하다. 이는 아직도 여전히 태국불자들에게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

또한 스님은 20세때 고향 담마우스 사찰서 출가해 왓농과풍 수도원에서 아잔 차에게 법과 율을 배우고 참선수행을 지도 받았다. 이후 스님의 명성은 더 커져서 이제는 왓빠파띠파람을 포함한 16개 이상의 숲 속 사찰을 거느리고 있으며 수백 명의 제자들이 태국 전 지역서 수행 중이다.

아잔 간하·브람, 심도 선사, 해국 스님 등 명상대가 초청 명상체험으로 행복찾기 체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물리학도이자 아잔차의 수제자인 아잔 브람도 이번 대회를 위해 내한한다. 이미 수차례의 방한을 통해 초기불교의 전통 수행법을 국내 명상 수행인들에게도 전파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는 그는 <성년 물소 놓아주기> <슬쉬한 코끼리 길들이기> 등 자신의 베스트셀러를 통해 "지금 여기에

개어 있어야. 앞을 내다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매 순간 존재하면 행복합니다"라고 말한다.

신도 50만명의 세계불교 박물관으로 유명한 대만 영취산불교 교단 선원장인 심도선사. '불법은 하나다'라며 대만서 유일하게 세계통합불교를 펼치는 대만 불교의 성자이다. 그가 매년 개최되는 수륙제 행사에는 7만명의 불자가 운집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10여년 간 고독하고 외진 곳을 다니며 고행의 길을 걷다가 1983년 후후산의 화후아 토굴에서 폐관정전에 들어갔고 이는 2년이 넘게 계속됐다. 이 수행도중 '모든 중생이 해탈할 때 비로소 깨달음이 완성된다'는 심오한 통찰지를 얻었다

고 한다.

마지막으로 충주 석종사 선원과 제주 남국선원 선원장 해국 스님도 이번 대회에 참여한다. 해국 스님은 13세때 해인사에서 일타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한국 불교의 선 수행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승이다. 젊은 시절 해인사에서 10만 배정진 후 연비하며 견성성불의 결연한 뜻을 다지고, 태백산 도솔암서 2년 7개월 동안 솔잎과 쌀로 생식을 하면서 장좌불와로 수행 정진했다. 그 후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전국의 선방서 한국 근대 큰 스승이신 성철스님, 구산스님 등을 모시며 오로지 간화선 수행만으로 수십 안거를 지낸 국가대표급 선승이다.

이번 세계명상대전 조직위원장은 말은 각산 스님은 "지난해 메르스로 연기된 점을 감안해 외형은 축소했지만 프로그램만큼은 더욱 내실화했다"며 "도박 중독자들이 발생하는 카지노가 위치한 정선서 참가자들이 명상과 수행, 참선을 통해 행복 찾기를 펼치는 이번 행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명상관계자 200명을 비롯해 모두 5천여명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참가문의 (02)451-0203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광출판사, (주)불광미디어로 전환

불교계 대표적 출판사인 불광출판사(대표 지홍 스님)가 올 1월에 (주)불광미디어로 전환해 눈길을 끈다. 이에 불광출판사는 공공성과 책임성, 확장성이 더욱 강화된 출판미디어 전문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불광미디어는 불교 콘텐츠 전문 업체로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성해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불교계 밖의 소통과 지식 서비스업체로서 균형을 위해 도서출판 원더바스를 런칭해 인문 사회 경제 등 출판 영역을 넓혔다. 이 또한 (주)불광미디어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이며, 확장성 강화를 위한 모색종 일안이라고 불광출판사측은 강조했다.

한편 (주)불광미디어는 불광의 창간 정신을 계승 발전기 위해 월간 불광과 단행본 불광출판사 브랜드는 계속 사용한다. 또한 불광출판사 대표 지홍 스님은 월간 불광과 불광출판사의 발간인을 유지하 현 주간은 (주)불광미디어의 대표이사로 경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60년 신도조직 이끈 재가불자들이 원력 모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61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신도조직인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이순(耳順)을 맞았다. 개인이 아닌 하나의 조직이 6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온 데는 재가불자들의 끊임없는 정진과 굳건한 원력이 밑거름이 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 61주년 기념식'을 거행,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며 포교에 매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중앙신도회는 앞서 지난해 60주년 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취소한 바 있다.

이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축하영상을 보내 중앙신도회의 창립기념을 축하하는 한편, 조직 발전에 헌신해온 재가불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중앙신도회는 1955년 전신인 전국신도회로 출범한 이후 불법홍포·불교중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기념식에는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 박남수 천도교 교령, 정의화 국회의장, 강창일 국회경각위원장, 나중민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흥·중생구제 등 불교가치 확산과 재가불자 역량 강화에 힘을 쏟으며, 한국불교의 신행문화를 이끌어왔다. 1960년대부터 '한국불교 종단중흥을 위한 전국불교도대표자 결의대회'와 '불교근대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불교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행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사회 각계 분야별 신도들을 한데 모으고, 종교편향 및 사회문제에 나서 불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최근에는 매년 행

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개최하며 불교 문화 확산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중앙신도회는 지난 60년 동안 조계종단의 중흥기이자 신도대표기구로서 신도운동의 역사를 계승하며 종단을 의호하고, 종도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할 수 있도록 가평정진하고 있다"면서 "세간을 향한 불교의 사회적 책임과 회향을 앞으로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차사에

서 "많은 사회갈등과 양극화 속에서도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자세로 진력해온 중앙신도회가 신행문화 확산을 통해 내 삶을 밝히고 사회를 더욱 항기롭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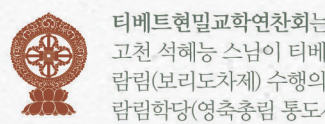
실제로 중앙신도회는 하안거 백일법문 재가논강과 동안거 돈오입도요문론 강설 수행논강 등을 진행하며 불자로서의 소양을 다지기 위한 수행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면서도 불교인재원과 봉사단 반갑다연우야를 발족, 리더십을 갖춘 불교인재 양성과 취약계층 의료봉사 등을 실시해왔다.

중앙신도회는 대회에서 조직 발전에 기여한 후원사 및 공로자 43명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지난해 행복바라미 나눔문화캠페인으로 모인한 기금을 배분하고, 통일과나눔재단과 통일나눔펀드 협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회원 1250명이 참여해 각각 5천원씩 총 625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창립기념식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발자취

- 1955. 11. 전국신도회 창립대회
- 1963. 9. 불교재산관리법 의거 불교단체 등록
- 1967. 5. 전국불교도대표자결의대회
- 1968. 11. 교법수호 전국신도단체협의회 구성
- 1977. 11. 월간 전신회보 발간
- 1984. 10. 국경교과서 시정추구 결의대회
- 1990. 10. 세계불교도 서울대회
- 1992. 8. 올림픽 불자선수단 환영법회
- 1993. 3. 사단법인 등록
- 1994. 11. 중앙신도회 관련 신도법 공포
- 1997. 3.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 2002. 1. 중앙신도회 홈페이지 오픈
- 2004. 7. 종교회합 실현 위한 법불교대회
- 2006. 4. 반갑다연우야 발대·불교인재원 설립
- 2007. 9. 중앙신도회관 기공식
- 2009. 9. 문화재현수기금마련 전시회
- 2010. 6.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창립대회
- 2013. 4. 행복바라미 일일식
- 2015. 12. 24개 교구신도회 창립 원로



티베트현밀교학연찬회는 고친 석해능 스님이 티베트불교에 전해지고 있는 현교와 밀교의 가르침을 연찬하기 위해 람림(보리도사제) 수행의 근본도량인 람림학당(영축총림 통도사율산포교원)에 세운 역경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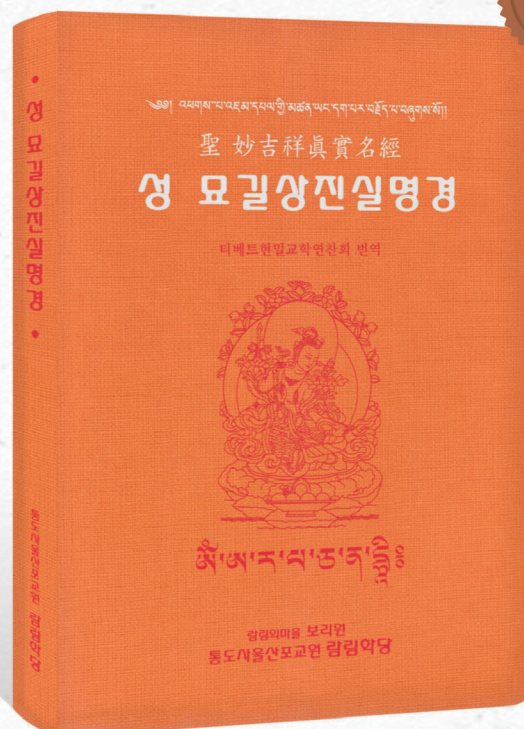


“세존의 지혜로부터 출현하신 성스러운 문수지혜살타는 무명의 난각을 깨어부순 님이시니 삼유의 그물망의 파괴자이시니라.”

- 성묘길상진실명경에서

성묘길상진실명경

聖 妙吉祥眞實名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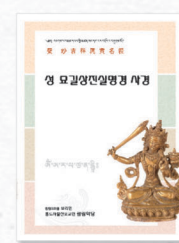


한국 최초 문수신행의 결정판

티베트현밀교학연찬회 | 역 | 양정민 | 386쪽 | 값 25,000원

우리나라 최초로 문수신행을 체계화한 성전! 티베트 불교 무상요가탄트라 의 핵심교설!

'티베트현밀교학연찬회'가 심혈을 기울여 역경한 진실명경에는 티베트어 원문과 음사, 한글본을 함께 실은 <분송>, 역대 고승들이 찬술한 <문수사리 예찬문>,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문수사리 성취법>이 망라되어 있다.



문수보살의 가피력을 입는 사경 **성묘길상진실명경 사경노트** 석해능스님 역음 | 6,000원

역경후원 및 보급등참 계좌 **농협 052-227-4080-009 (351-0748-5231-33)** (예금주 : 람림학당역경후원회)

문의 | 통도사율산포교원 람림학당 052)227-4080

'부다가야'는 삼세의 대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성도지로, '도사율란 부다가야'는 부처님의 길로 향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불서를 펴냅니다.

대표전화 | 051)865-4383 편집디자인 | **부다가야** 051)866-7818